

수묵화의 무한 변신... 다양한 장르에 스며들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목포 문예회관 등 19곳서 열려

동양적인 수묵화의 다채로운 변신. 수묵화는 더 이상 고전적인 화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인접 장르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연대' 하면서 새로운 작품으로의 변신과 진화를 거듭했다.

전남은 공재 운두서, 소치 허련, 남농 허견 등 수묵화의 거장을 배출한 수묵화의 본고장이다. 이들의 작품에는 여백과 깊이, 인문학의 향기가 스며들어 보는 이에게 고아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준다.

기존 수묵화는 전통 그대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데 반해, 젊은 작가들이 재해석한 수묵의 재료성과 현대성은 수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확장시킨다. 전통 수묵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장르로 확산하는 수묵 작품을 보는 맛을 쏙쏙하다.

지난 1일 개막한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10월 31일까지)는 동양적인 전통 수묵화 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토대로 한 현대적인 수묵화를 만나는 자리였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자는 막바지 전시 준비로 한창인 목포 문예회관, 노적봉공원미술관, 진도 윤림산방, 진도항토문화회관 등을 찾았다.

전시장에서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이라는 주제처럼 산과 물이 융합되고 변주되는 양상을 개성적인 붓질로 표현한 작품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관념이 눈앞에 실재하는 모습은 사뭇 이채로웠다.

목포 문예회관 1관에는 '산·물, 바람·빛'과 '목포는 항구다'를 주제로 한 작품이 내걸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오용길 작가가 화선지에 수묵담채를 그린 '사계'였다. 작가는 "사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성장과정을 한 화면에 담아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유년시절부터 노년시절로의 변화를 연결시켜 보았다"고 밝혔다.

수묵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사할 수도 있을까 싶었다. 벽면을 장식한 그림은 사계절과 삶의 행로를 연계해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

수용·연대하며 변신하고 진화 실험 곁들인 현대적 작품 한자리 15국 해외작가 레지던시 작품도

'이건희 컬렉션 조우'도 볼거리 광양도립미술관 10월까지

권세진 작가의 '바다를 구성하는 1482개의 드로잉 1482'는 섬세한 감정과 생동감이 돋보였다. 자연의 흐름처럼 작가의 감정이 종이에 번져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맞은편에 걸린 류희민 작가의 '계곡'은 권 작가의 바다 관련 작품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인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을 상징하는 작품의 배치인 듯했다. 류 작가가 계곡을 소재로 자연에 대한 감정입을 대상의 재현이 아닌 주관적 해석으로 담아낸 점이 눈길을 끌었다.

15개국 해외작가들의 레지던시가 열리는 공간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먼저 우용민 작가의 '눈꽃'은 정통 수묵화의 멋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겨울 지리산을 그리기 위해 한겨울 내내 지리산에 올랐다 한다. 매일매일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림일기를 쓰고 그렸고 그것이 모아져 눈꽃이 핀 겨울 지리산으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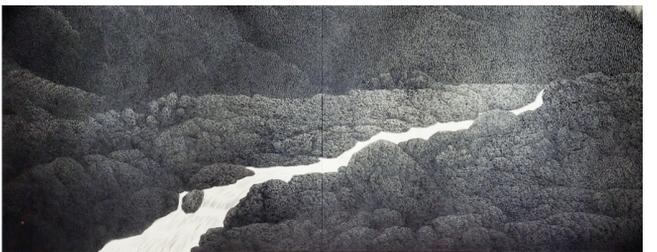
요요진 작가의 '눈물, 평화' 작품도 오래도록 시선을 붙들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노래가사의 일부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며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소개되기까지 부당함에 맞서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고 나아가 그 당시 대중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 문예회관, 진도 윤림산방을 비롯해 전남 시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요요진 작 '눈물, 평화'



류희민 작 '계곡'

태국 소사폰 작가가 수묵의 특성을 이해하고 풀어낸 작품, 베트남 작가 닥닥오의 복(福)이라는 작품도 이색적이었다. 특히 닥닥오 작가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슈가 된 상황을 물고기를 그려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진도 윤림산방 소치 1관·2관에는 모두 6명의 작가가 '화답', '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주제로 출품한

작품이 걸렸다. 문인화의 풍모를 보여주는 대가들의 산수화와 미디어아티스트 6인의 인터랙티브형 전시다. 장세희 작가의 '마음의 계절', 김병호 작가의 '관찰-수평정원' 등은 수묵화의 무한 변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밖에 특별전시관 3개관(광양도립미술관, 순천만국제정원박물관, 해남 대흥사)을 비롯해 14개

시군 18개소의 시·군 기념전도 수묵의 아름다움과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광양 도립미술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를 개최해 수묵과 현대미술의 아름다움과 특별함, 조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광주 영화사에 어떤 영향 끼쳤나

광주영화영상인연대 'VOTE VIDEO!' 5일부터 독립영화관서 무료

광주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던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5·18광주민중항쟁 연속기획전 'VOTE VIDEO!'를 오는 5일부터 한 달여 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기획전은 영화를 통해 5월 민중항쟁이 한국사의 질곡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이다. 그동안 한국영화사에서 '극장 상'되지 않고 누락되었던 영화들을 감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먼저 5일(오후 6시 30분)과 9일(오후 3시)에는

'한국영화, 찻감'을 감상한다. 이 작품은 부산 및 칸느 영화제 등에서 몇 번 선보인 다음 극장가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으로, 영화감상 후 강성을 영화평론가와 '영화 찻감의 역사'와 한국영화사의 5·18'을 주제로 세미나클래스가 진행된다.

이어 25일(오전 11시)에는 극단 토박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박효선 영화전을 진행한다. 극단 '토박이'와 '광대'를 설립한 박효선(朴曉善, 1954-1998)은 5·18을 배경으로 '오월 삼부작'(금희의 오월, 모란꽃, 그에게 보내는 편지)을 쓴 극작가이다. 1970년 중반에는 윤상원 등과 함께 들불야학



이다. 무료 진행. 자세한 내용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에서 강의했으며 80년대 시민군 홍보부장을 맡았다.

'시민군 윤상원', '밀항 탈출', '레드브릭' 세 작품을 상영하고 오정목 연출가, 임해정(토박이 대표), 오태승(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과 함께 박효선 영화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논의한다는 계획

몸과 마음이 만났을 때

김진남 개인전...27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인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작품은 장르를 떠나 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심리와 감정을 토대로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육체적, 정신적 관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한 김진남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27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몸을 주요 모티브로 풀어낸 독창적인 인물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작가는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오랫동안 서울에서 활동했다. 이후 광주로 이주해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작가는 달빛이 물속에 비치며 일어나는 물결의 움직임, 차창의 빛물에 비친 내내 빛과 왜곡된 모습,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신비로움 등을 표현했다.

특히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신체와 마음 사이의 연결을 표현한다. 작가는 인간이 유사한 체계를 통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양상을 육체적·정신적 관계로 구현



'비온드'

했다. 전시 관계자는 "김진남 작가의 작업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복잡한 존재를 탐구한다"며 "그의 작품은 물의 신비와 두려움을 바탕으로 감정과 심리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정기 강좌

30일까지 전남대 앞 카페 노블 철학·하루키·가족·인문 등 다채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06기 정기 강좌가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철학, 하루키, 가족, 인문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월요일(4일, 8일 오후 2시)에는 서명원 교

수가 '신체화된 마음에 관하여'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목요일(7, 21일 오후 2시)에는 전남대 위상복명에 교수가 '독일 이데올로기' 강의를 진행한다.

하루키를 주제로 한 강의도 있다. 금요일(8일, 22일 오후 2시)신우진 이사장이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사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예정이다.

토요일(9일, 23일 오후 2시)에는 신광용 책임연구원 등이 "가족 언어" 점점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일에는 '가을에 떠나는 인문 여행'이 예



정돼 있다. 화요일(5일, 26일 오후 7시)에는 최은영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모티브로 책글동아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정돼 있다.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010-4624-1201)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도 4일 개강한다. 월요일 오후 7시에는 '기후 감수성'을 주제로 열리며 매주 월요일에는 'ESG 민시넷: LOW 화석연료'를 주제로 인문교실이 펼쳐진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